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6월 28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나 >

마태복음 6:31-33 / 새찬송가 95 (통일 82)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1.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름 아닌 순서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서라기보다 그들의 정욕을 말씀보다 우선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걱정근심, 질고, 저주, 죽음 등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선한 생각도 나오겠으나 그 전에 먼저 최악과 관련된 생각이 튀어나와서 선한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죄를 범합니다(막7:2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이긴 것은 죄를 질 생각과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청년의 정욕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보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셨습니다(요10:18). 우리 신앙생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목숨보다 주님과 복음이 더 우선이어야 합니다(막8:34,35)

2. 우리는 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각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생각의 순서가 바뀝니다(시51:10), (겔36:26).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 즉 내 생각을 우선시하는 고집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만들어주십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그보다 먼저 성령의 꿈과 비전으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이 넘치게 됩니다(행2:17), (요14:26).

3. 이처럼 생각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의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가지라는 말입니다(마6:31-33).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가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이뤄지는데 이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심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창조하셔서 주신다'는 뜻입니다(고후5:17).

결과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이 주어지면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지키는 새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삶의 필요 즉 용서와 죄 사함, 건강과 문제해결까지 새롭게 창조되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복은 기존 상태에서 더 나아지게 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는 창조의 축복입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성령님께 여쭙봅시다.